

자기 세대를 섬기다 주님께 가는 베스트 성도가 되자

성경말씀: 행13:36-37

설교 종류가 많다. 강해 설교, 같은 단어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 한 구절, 구를 가지고 주제 설교
나는 주로 강해 설교, 오늘은 성경의 한 절을 떼어서 설교 제목으로 삼고 주제 설교를 하겠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바울의 1차 설교 여행, 비시디아의 안디옥 도착, 회당(14), 율법과 대언서 낭독(15),
할 말이 있으면 하라(15),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진술(17), 아브라함 등 조상들 선택, 이집트
탈출, 재판관들의 시대, 왕정 시대 1차 사울, 그 뒤 다윗, 내 마음에 맞는 사람(22), 이 사람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23), 그러나 너희가 그분을 죽이고 돌무덤에 가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심(29-30),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것 시편 2편(33), 그리고 시16편
(35)

시편 16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나? 그는
36절에 기록된 사람,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 사람, < >

인간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수백 억 명의 사람들 존재,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 지금도 약 70억 명이 있다. 우리는 그중의
일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라면 짐승과 달리 다음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대다수 사람들의 묘비, 이름 홍길동 1919-1999, 80년이 하이픈
하나로 표기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의 묘비 글, 오스카 와일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는가? 오늘은 특히 수능 치른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청장년들에게 인생의 도전을 주려고 한다. 연세 드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것 준비

다윗 이야기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 등장,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계보의 시초가 되는 사람 다윗
신약의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16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원토록 이 호칭, 메시아의 조상
오늘 제목: <자기 세대를 섬기는 사람>, 다윗은 어떻게 자기 세대를 섬겼는가?

어떤 사람인가? 베들레헴 유다에서 이새의 막내아들로 태어남, 7명의 형들 밑에서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으며 양치는 목동으로 자라남,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중에 메시아
계보의 조상이 된다는 것 전혀 알지 못함, 다만 성실하게 양들을 치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시8). 사자나 악한 짐승이 양들을 공격하면 무릿매를 사용해서 짐승들
격퇴(*), 목동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늘 무릿매 사용하는 것을 연습하고 자기 일에
충실함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기회가 그에게 옴, 삼상17장, 아버지의 명령, 세 형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갔으니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안부를 묻고 와라(13-18).

삼상17장,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 중(19),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는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나옴, 키가
약 3m, 나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리라(9). 이 말을 40일 동안 하므로(16)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혼비백산
다윗이 진영에 도착했더니 그가 동일한 말을 하며 이스라엘 능욕,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그의 만형 엘리압이
듣고는 야단을 칩(28절, 양이나 지킬 놈이 왜 여기에 끼느냐? 구경하려 하느냐?)

다윗에게 분한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사울에게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 자기 갑옷을 입으라고 함, 시험해 보고 No

매끄러운 돌 5개, 무릿매(40)

골리앗이 보니 가관이다. 17세 소년이 자기와 싸우겠다고 하니. “막대기를 들고 오니 내가 개냐?”(43)
다윗의 말(17:45-47)

결국 무릿매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머리를 뺐(*), 이스라엘의 승리, 블레셋 도망감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둬,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18:7), 사울의 분노

여러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 함, 딸까지 주어서 사위를 삼고도 그를 죽이려함

그때부터 13년 동안 만 30살이 될 때까지 매일의 삶이 죽음 일보 직전(삼상20:3)
 그의 눈물의 기도(시56:1-3, 8), 결국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됨, 40년 통치
 그 40년 동안 왕국 정비, 메시아 약속을 받음, 밋세바 사건을 통해 징계를 받음, 여러 시편을 지음,
 그리고 만 70세에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감
 그의 일생 요약(시23)

지금 살펴본 대로 그는 70년 인생을 자기 세대를 섬기며 살았다. 자기 세대를 섬기려는 사람의 특징

1.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2.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일하였다(목동, 왕).
3. 죽을 고비가 수십 차례 있었으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 절대로 하나님 불평 없음
4. 밋세바 사건, 간음 죄, 하나님의 용서, 시51을 통해 죄들의 용서 방법, 철저한 회개
5.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 짓기를 갈망,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아들에게 명령함
6.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됨,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가서 칭찬

나의 60년 삶

어떻게 살다 보니 지난주에 만 60세가 되었다.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장경동 목사님 전화, 생일 날 가장 먼저 축하한다고 카톡, 이런 날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전화
 내 처도 60세, 내 처는 이제 많이 늙어서 여러 군데가 아프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갈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
 나는 거제도 반공포로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땅에는 아버지 혼자, 혈혈단신, 무일푼
 솔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어릴 때 이북에서 믿었던 예수님,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철저한 믿음
 생활, 부지런하게 사셨다. 세상의 가장 힘들고 천한 일, 단백 뇨 등 죽을 고비
 세 아들 두 명은 공학박사, 교사로 키움

나는 어려서부터 감리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 중학교 때부터 성경 읽기 좋아함, 여러 차례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함.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교회 모든 예배 참가
 만 23세에 캐나다 유학 가서도 매주 오전 오후 예배 참석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 참석, 수입의 일부 헌금,

미국으로 들어와 구영재 선교사님을 통해 종교와 복음 차이 알게 됨.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때부터 열정적으로 진리 탐구, 천주교 연구, 이단 연구, 창조와 진화 연구, 교회 연구, 그러다가 최종적으
 로 성경 연구(프로테스탄트 사본 성경과 천주교 사본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발견, 30년 이상
 비교 분석,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 확신
 그 뒤 번역 시작, 2000년 초판, 그 뒤 지금까지 무려 20년 동안 교정

주님의 은혜: 내년에 마제스티 판 출간 예정
 교회 문제로 갈등: 그래서 오랫동안 해마다가 미국식 독립침례교회가 성경에 근접함을 발견함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의 자유, 침례교회
 펜사콜라 신대원도 다니고 목사 안수, 승리침례교회 망함, 절망 가운데 있다가 2008년부터 사랑침례교회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 2018년에도 대지 1000편에 130억 건물 신축, 서창 캠퍼스 이전
 좋은 일만 있지 않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나를 공격하는 무리 생김, “개역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구원받는다” 등의 난센스 발언을 내가 했다
 고 거짓 비방

그러다가 급기야 2019년 9월 장로교 백선 이단, 합동은 이단성 연장, 고신은 이단성 조사 결의
 이 와중에 3년 전에 불순분자들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가려 함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2018년 4월부터 애국 강연회 시작, 교회 짓는 동안 교회의 5분의 일 정도가
 나감, “정치 발언한다” 비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하나님의 뜻이라
 고 믿는다. 내가 수십 차례 읽은 성경, 내가 미국에서 본 교회들, 장로교의 웨인 그루렘, 성경과

정치 강연, 지지난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목회자 1200명 앞 강연, <정교 분리의 참된 의미> 40만 명 이상, 김문수 지사 강연 150만 회 이상, 총 애국 강연 1500만 조회, 국민들 성도들 계몽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보니 어느새 60세, 오스카 와일드처럼 말하면 안 되지 않는가?

내 세대를 섬기다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야 한다.

나는 어떻게 내 세대를 섬길까?

1.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 성경,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풍토 고쳐놓고 가겠다. 다음 주에 <성경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서명 사이트 오픈 일 시작, 우리는 개역성경으로 구원받았다,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성경 역본들을 비교한 뒤 역사적 데이터와 우리 양심의 증언에 따라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 우리는 성경 무오성을 믿는다.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2. 내년에 성경 교정판을 발간하게 되면 성우 써서 전체 낭독, 무료 성경 앱, 유튜브 올림, 무료 읽기 앱
3.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독립침례교회가 없는 지역에 신약성경에 따른 교회 설립하는 것 도우려 함 이를 위해 교회 내외부에서 좋은 지도자들 발굴, 양육,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좋은 아이들, 목사 선교사, 사모 되기 원하면 미국 펜사콜라 대학 등 교육
4. 나는 목사로 있는 한 지금까지 강해하지 못한 성경 책들 강해 완료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강해 및 설교
그리고 성경 질문, 존 파이퍼 팟캐스트 등 진행
5. 아마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성도들과 함께 다음 목회자 발굴,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자식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다가 주님께 갈 것이다.

결론

모든 사람이 한 세대를 살다가 죽는다. 좋은 족적을 남기고 죽어야 한다.

그런데 그냥 죽으면 안 되고 구원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환경 탓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것이 곧 이 세대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는 어떻게 이 세대를 섬길 수 있는가? 내 교회, 지역 사회, 국가
구약의 다윗과 같이, 신약의 바울과 같이, 16세기의 마르틴 루터와 같이 이 세대를 성실하게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께 가서 잘했다 칭찬받은 우리 모두가 되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겉으로 보기에 큰 일, 작은 일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침례교회로 뭉쳐서 이 세대를 섬기고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한민국에 손을 얹어 주실 것이다.

1999년 빌 게이더

The Longer I Serve Him(내가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은 내게 더 달콤한 분이 되십니다)

Since I started for the Kingdom(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발걸음을 땀 이후로)

Since my life He controls(그분께서 내 삶을 지배하신 이후로)

Since I gave my heart to Jesus(내가 내 맘을 예수님께 드린 이후로)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내가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은 내게 더 달콤한 분이 되십니다).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내가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은 내게

더 달콤한 분이 되십니다)

The more that I love Him, more love He bestows;(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께서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Each day is like heaven, my heart overflows, (그래서 매일이 천국이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내가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은 내게 더 달콤한 분이 되십니다)

Ev'ry need He is supplying, Plenteous grace He bestows(그분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Ev'ry day my way gets brighter,(그래서 매일 내 길은 점점 더 빛이 납니다)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내가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은 내게 더 달콤한 분이 되십니다).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내가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은 내게 더 달콤한 분이 되십니다)

The more that I love Him, more love He bestows;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께서 더 많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Each day is like heaven, my heart overflows, (그래서 매일이 천국이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내가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분은 내게 더 달콤한 분이 되십니다)

우리말, 유튜브 최명자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